

해피밀 시즌 6-6호를 발간하며, 찬양과 기도의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3개월 동안 '사도신경_CREDO(나는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믿고 고백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더욱 고정되어 굳건하여지시길 기도합니다.

이번 시즌 해피밀을 통해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게 됩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찬양이며 기도입니다. 시편의 저자들은 기쁨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였고, 슬픔과 고난의 순간에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며 부르짖었습니다.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노래하였습니다.

시편의 저자들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과 탄식까지도 받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형편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노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의 말씀은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경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믿음이 각 가정과 교회에 확산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리딩지저스와 함께하는 해피밀의 여정을 통해 우리의 찬양과 기도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서 지금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시길, 기쁨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슬플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평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7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수원평안교회 담임목사 정재광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reading 'Paul Jung'.

해피밀 시즌6 이렇게 활용하세요 :-)

오늘의 통독범위 입니다.

모세오경 통독완성시 <모세오경 마블자석>을 선물로 드립니다.

2026.02.10(월)



창세기 1~4장

창조와 타락, 구원 계획의 시작(창 3:15)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세상의 시작, 이 세상에
오늘 해피밀 제목입니다. 의 원인이 어디에서 부터 오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오늘 통독범위의 핵심구절입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이 세상이 오염되어, 시기, 질투, 다

툼, 재해, 살인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창세기의 '시작'에 대한 진술은 고대 다른 신화와는 완전히 독보적으로 다릅니다. 그
리스도 로마 신화를 보면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들 중에 가장 강력한 신인
제우스가 티탄과의 전쟁이 끝난 뒤 무료함을 느껴 생명체 창조를 계획했다고 말합니다. 프로
메테우스는 가장 먼저 인간을 만들고 그 후 동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의 동생 에피메테
우스는 여기에서 매우 큰 실수를 하는데, 동물들에게는 강력한 재능들(이빨, 털, 날개 등등)
을 주었지만, 캄박하고 인간에게는 재능을 주지 못하여, 인간은 가장 약하고 추위에도 취약
한 동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는 불쌍한 인간에게 신들의 '불'을 훔쳐다

오늘 해피밀 묵상 설교문입니다.

이러한 창세기의 '시작'에 대한 진술은 고대 다른 신화와는 완전히 독보적으로 다릅니다. 그
리스도 로마 신화를 보면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들 중에 가장 강력한 신인
제우스가 티탄과의 전쟁이 끝난 뒤 무료함을 느껴 생명체 창조를 계획했다고 말합니다. 프로
메테우스는 가장 먼저 인간을 만들고 그 후 동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의 동생 에피메테
우스는 여기에서 매우 큰 실수를 하는데, 동물들에게는 강력한 재능들(이빨, 털, 날개 등등)
을 주었지만, 캄박하고 인간에게는 재능을 주지 못하여, 인간은 가장 약하고 추위에도 취약
한 동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는 불쌍한 인간에게 신들의 '불'을 훔쳐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는 핵심 본문에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
나님의 마음이 들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며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뒤통みを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을 것
이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학자들은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야
기가 타락한 세상 속에 한 줄기 빛처럼 비추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묵상질문

오늘의 묵상질문입니다.

1. 세상에 귀여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깊이 묵상해보세요.
2.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최대한 많이, 오랫동안 고백해보
세요.







시편 25-30편

진리의 삶을 살며(시편 27:1-4)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대적을 상정하는 일과 같습니다. 어둠은 빛을 경계하기 마련이고, 진리는 거짓의 방해를 받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복음 사역을 두고 "불을 던지러왔다(49절)"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복음 사역에 있어서 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음 아픈 것은 이 분쟁의 영역이 사랑하는 가족, 친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복음적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거짓과 악의 권세와의 마찰이 빚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말씀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대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의 인생에는 내부적인 적들이 있었고, 외부적인 적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시기를 받고, 요압의 불순종이 있었으며, 아들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늘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 있었고, 그들은 틈만 나면 다윗을 공격해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마찰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과정이었고, 또 매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발걸음 속에서 일어난 마찰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마찰 속에서 1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생명이니,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으며 태연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진리의 삶에는 반드시 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대적과의 마찰에서 우리는 태연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눅들게 하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4절 말씀에서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결을 소개합니다. 그는 "여호와께 바라는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소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은 "평생에 여호와 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와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소원의 내용은 '거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단순히 밖에서 데이트하듯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내밀하고 은밀하게 그 분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집에 평생 사는 것을 바랍니다. 곧 부부처럼 평생 내밀한 사랑을 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살며 그 분의 아름다움을 보겠다고 말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반하는 것입니다. 그 분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뺨기고 또 뺨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대적들을 대항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승천을 통해 주어진 성령의 전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속에서 늘 하나님께 반하시길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오늘 나의 삶에 진리의 삶을 살아가며 일어나는 갈등과 마찰은 무엇입니까?
2. 최근 내가 반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시편 31-36편

신앙의 항상성(시편 34:1-3)

오늘 시편의 부제가 제법 주목이 됩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체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합니다. 성도님께서는 누군가 앞에서 극심한 부끄러움을 당하고, 모든 체면이 다 구겨질 때 어떤 시를 쓰시겠습니까?

다윗은 그의 시편 1편에서 이렇게 운을 띄웁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네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말합니다. 찬양은 무엇입니까? 그 분이 하신 일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존귀해서, 노래하지 않고서는, 칭송하지 않고서는, 인정하지 않고서는 못버틸 때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항상'이라는 반복되는 단어가 눈길을 끄니다. '항상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이 생물학 분야에서는 이러한 뜻이 있다고 합니다. "생체가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생명 현상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 또는 그런 현상." 지금 그에게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에게 미친 척할 수 밖에 없었던 인생의 벼랑 끝에 몰린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의 마음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전에도 살아온 그 일정한 성질, 앞으로도 지켜나아가야 할 일정한 성질, 곧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자신의 항상성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인생의 벼랑 끝에 선 것과 같은 감정, 마음, 환경이 찾아왔을 때 이러한 '여호와를 송축하는 '항상성'을 지킬 수 있습니까?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었던 비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왜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이러한 역경을 주시는 지를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 자기와 같은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자신이 미친 척한 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이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와! 이 상황 속에서도 저 기쁨이 가능하구나! 와! 저 상황도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 미친체한 상황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덕분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서 그는 하나님이 '광대하시다'라고 말합니다. 광대라는 말은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셔서 그분의 큰 계획을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계획 속에서 이 땅에 구주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묵상질문

1. 내 인생에 가장 부끄러웠을 때는 언제입니까?
2. 내 삶에 항상 여호와를 인정하기 위해 가져야 할 경건한 노력은 무엇입니까?





시편 37-42편

사무치는 그리움(시편 42:1-5)

무언가를 간절히 그리워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군대에 들어가며 그렇게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군생활 내도록 집이 그리웠습니다. 군대에 그나마 잘 적응했지만, 그래도 고향집이 주는 그 따뜻함은 항상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이처럼 성도님들께서는 무언가를 가슴 사무치도록 그리워한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시편 저자는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그리움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은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 소리만 들어도 귀가 쫑긋하며 그 물을 마시고 싶어하듯, 그리워하는 대상의 작은 흔적이라도 느껴질 때라면 곧바로 마음이 설레고 한 걸음에 달려가고 싶은 그러한 그리움인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통해 유추해보는 것은 시편 저자는 바벨론 포로기에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향 예루살렘이 멸망한 상황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옛적 기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온 성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 아름다운 고향 땅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가슴 사무치게 그리워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움은 더 나은 것을 열망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품이 그리웠다면, 엄마의 품보다 더 포근한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고향에서 아무 걱정없이, 인생의 시름없이 살던 때가 그리웠다면, 우리의 본향, 우리가 다시 돌아갈 진정한 예루살렘,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움, 갈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주어진 믿음의 역할입니다. 히브리서에는 믿음의 역할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그 본향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속에 그러한 그리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납니다. 5절 말씀에 보니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그 나라를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이십니다. 이 땅에서 복과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원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임재는 재난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워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나타나' 도우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을 그 나라를 향하게 하였고, 그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묵상질문

1. 요즘 내가 그리워하거나 기다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2.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나의 갈급함은 얼마나 강렬한가요?





시편 43-48편

피난처 하나님(시편 46:8-11)

존 레논의 'Imagine'이라는 노래를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노래는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당시 평화를 노래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노래의 대략적인 가사는 이렇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거기에는 나라도 없고, 힘든 일을 할 필요도 없고, 살인도 없고, 죽음도 없죠. 종교도 없어요. 상상해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평화 속에서 살아요"라고 말이죠. 전쟁이 한창인 세계 속에서 평화를 노래했던 그의 이 노래는 많은 이들의 마음에 잠깐의 위로를 주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노래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는 도무지 평화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평화를 실현하십니다. 전쟁을 쉬게 하시고, 활을 꺾으시고, 창을 끊으시며 수레를 불사르십니다. 세상의 난리를 조용히 하시는 하나님의 평화 이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지 말고 살아계시며 실현하시는 이 하나님께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그저 안개처럼 사라지는 한숨으로 우리 삶에 찾아온 고난과 불평과 재난을 대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평화를 만드시는 실현자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불화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인생에 대적이 너무나도 많으십니까?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세상이 만들어둔 여러 시스템과 구조 속에서 너무 피곤하고 지쳐계십니까?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그 분은 우리의 삶에 평화를 실현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보십시오. 그 분은 활을 꺾으시고, 창을 끊으시며, 수레를 불사르신 분이십니다. 그 분의 전쟁 그림의 방법은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고 있던 로마와 강력한 전쟁을 벌여서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마카비(망치)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셀레우코스 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종교 박해를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마카비는 승리하여 독립 왕조를 세웠지만, 그 반란의 여파는 역사 속에서 더 강력한 반사작용을 가져와 유대인들에게 더 극심한 박해를 선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러한 정치적 메시아이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은 군사행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저주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 죄인들을 진멸하시고, 벌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용서, 사랑, 자비, 긍휼, 희생이라는 아름다운 평화의 씨앗들을 선보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평화의 씨앗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묵상질문

1. 인생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피하고 계십니까?
2. 나의 삶에 예수님이 허락하신 평화의 씨앗은 뿌려지고 있습니까?





시편 49-54편

끝을 수 없는 관계(시 51:6-8)

오늘 우리는 유명한 다윗의 회개 시를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회개시의 몇 가지 특징은 나누어보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먼저 다윗의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였습니다.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그 분의 진노라 선언되는데 다윗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조금 쓴소리 했다고, 또 가르치려 했다고 관계가 서먹해지는 사이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아름다운 관계를 볼때 이해가 가능합니다. 다윗과 하나님은 정말 뿔레야 뿔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마치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말입니다. 부모들은 가끔 어린 아이를 혼냅니다. 그럴 때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의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부모님께 매달립니다. 안아달라고 하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화내지 말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엮어진 천륜과도 같은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께 더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주셨습니다. 그 분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으며, 우리의 입에서 아바 아버지라는 말을 듣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회개는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 죄의 영향력을 경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더욱 진취적어집니다. 먼저 자신을 용서해주셔서 이제 자신도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는 사람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개인의 죄 용서로 그치지 않고 타인과 공공의 죄를 도말하고자 하는 그의 진취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회개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나의 회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만나게 하신 한 영혼의 죄짓지 않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한 경험을 바탕으로 바른 회개를 제시하고, 죄를 지었던 부끄러운 경험을 바탕으로 죄짓지 않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나아가 그의 기도는 타인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더욱 더 공공을 향해 나아갑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은택이 있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수원 호매실이 죄짓지 않도록 나아가 이 나라가 죄짓지 않도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묵상질문

1. 요즘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2. 가족과 이 도시, 이 나라가 죄 짓지 않기를 기도한 적이 언제이신가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시편 51편)

예배 시작 전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성경을 준비해주세요
믿음의 가정은 예배를 위해 먼저 묵상기도해 주세요

찬양

온 가족이 드리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입니다
유튜브 찬양링크를 통해 함께 부르시면 더 좋아요!



대표기도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정을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때론 죄를 지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지만 자녀가 부모를 떠날 수 없듯 죄 중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나눔

우리는 가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죄를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에 죄책감이라는 것이 몰려옵니다. 죄책감의 특징 중 하나는 내가 죄 지은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눈을 피하게 하고, 거리를 두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불편해집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죄가 들추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다윗과 하나님은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와 하나님이 그러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을 보며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 중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나눔질문

1. 자녀의 죄를 보며 부모님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2.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주기도문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아이들이 주기도문을 어려워 한다면 주기도문 찬양을 틀어주세요!





시편 55-60편

오늘을 버티기 힘드십니까?(시 57:11)

하루를 살아가는데 참 많은 힘이 듭니다. 아침에 눈을 비비고 일터로, 학교로, 맡겨진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퇴근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퇴근 시간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잔업이 잔뜩 몰려올 때면 속상한 마음이 왈칵 밀려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대는 이처럼 어긋나고 우리를 자주 실망시킵니다.

하지만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절대 깨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오늘을 버텨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르게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에게 쫓기다 완전히 막다른 굴로 내몰렸습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매우 갈급한 상태입니다. 언제까지 이 캄캄하고 억울한 길을 걸어가야 하나 답답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길 법도 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결코 놓지 않습니다. 사방이 막힌 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오직 그분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이 상황을 반드시 넘어가게 하실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 후 다윗에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막다른 굴까지 몰렸지만 사울에게 들키지 않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히려 사울의 옷자락을 자를 수 있는 기회까지 얻게 되죠. 보통 사람이라면 들키지 않은 자신의 운을 자랑하거나 그 자리에서 사울을 죽여버리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놀랍게도 사울의 옷자락만 자른 채 5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다윗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증명된 순간, 그는 확신의 기쁨과 놀라운 감격을 누렸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 너머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은 다윗은 참으로 멋진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사망의 위협 앞에서 그의 믿음은 종종 흔들렸고, 완전한 확신보다는 눈물 섞인 '기대'에 의지하여 버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십자가라는 가장 참혹하고 캄캄한 죽음의 굴에 갇히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더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일으키사 영광을 취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대는 무너지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확신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위대한 승리를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요즘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대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2. 기대가 무너졌을 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시편 61-66편

가까울수록(시 66:3-5)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라는 찰리 채플린의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의 신앙에 빗대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우리는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왜곡하고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창조주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하찮은 죄인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가까웠던 다윗은 죄 앞에서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철저히 항복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죄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구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이들은 미련한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나의 의지로 죄를 억제하고,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오판합니다. ‘이 정도 죄는 내가 어찌할 수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련한 용기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도, 다룰 수도 없습니다. 죄의 파괴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끈질기고 강력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로 부족하십니까? 창세기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한 자였습니다. 그런 그는 보디발 아내의 치명적인 유혹과 맞서 싸워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유혹이 닥쳐오자, 그는 미련 없이 겹옷을 버려두고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닥쳐오는 죄 앞에 선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교묘하게 찾아오는 죄가 무엇입니까? 나의 삶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그 은밀한 죄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대적하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두 손 들고 맡겨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더러운 허물을 기꺼이 덮어 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땅끝부터 바다 너머까지 온 우주를 통치하시면서도, 우리의 작고 연약한 일상까지도 세밀하게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결정적으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매일 저서 넘어지는 그 죄와 결코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십자가의 고통과 유혹 앞에서도 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경외함으로 온전히 이기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백전백패하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든 죄인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이 승리의 예수님을 굳게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이 정도 죄는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십니까? 다윗과 요셉처럼 항복하십니까?
2. 나를 번번이 넘어뜨리는 은밀한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져가고 있습니까?





시편 67-72편

닭기를 원합니다(시 69:4)

오랜 시간 함께한 부부를 보면 참 많이 닭아 있습니다. 억지로 닭으려 한 것도 아닌데, 신기하게도 많은 부분이 닭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의 말투부터 표정, 사소한 습관과 생각하는 방식까지 닭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닭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사랑하셨기에 수시로 성전을 방문하셨고, 그곳에서 말씀을 읽고 가르치셨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에 나아와 말씀을 가까이하고 늘 깨어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또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는 뒷걸음질을 칩니다. 나에게 유익과 위로가 되는 말씀은 덤씩 받아들이면서, 내 삶에 조금이라도 손해나 희생이 요구되는 십자가는 슬그머니 거부하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모습이 고스란히 겹쳐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이 죄인 취급을 받으셨던 것처럼, 다윗 역시 4절에서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며 부당한 핍박과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또한 9절을 보십시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심 때문에 오히려 비방을 받았습니다. 이는 훗날 부패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며 세상의 조롱을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히 예표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 등장하는 '쓸개와 초'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십자가의 고통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떠오르게 합니다.

물론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그 대속의 고난을 온전히 공감하거나 흉내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고난의 흔적에 조금이라도 참여하려는 애통함과 몸부림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입맛에 맞는 은혜만 취하려는 이기심을 내려놓으시길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사랑하며, 주님의 삶이 내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선명하게 새겨지도록 기꺼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축복은 받아들이고 십자가는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2. 까닭 없이 미움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을 떠올리며 인내하시겠습니까?





시편 73-78편

화려한 인생을 원하십니까?(시 73:17)

요즘 SNS를 보다 보면 저마다의 화려하고 행복한 일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며, 여유롭게 여행을 즐기는 모습이 있습니다. 가끔은 '나만 빼고 다들 잘 사는구나' 하는 애달픈 마음이 생깁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삶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형통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마다 우리에게 회의감과 억울함이 찾아옵니다.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보려 발버둥 쳤던 지난 날들을 바라보며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오늘 시편 73편의 저자 아삽도 아마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는 악인들이 고난도 없이 형통하고 재물은 늘어만 가는데, 정작 매일 눈물로 기도하는 자신은 종일토록 재난을 당하는 것 같아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오죽하면 13절에서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다"라고 탄식하며, 신앙의 걸음이 완전히 미끄러질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억울함 속에서 기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세상의 가치가 벗겨지고 주님의 가치가 끼워진 것입니다. 부러워 미칠 것 같았던 악인들의 화려함이 사실은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미끄러운 곳'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구약 시대의 성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참된 성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머물러 있을 때는 남들과 비교하며 좌절하지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의 모든 영광과 부유함을 버리시고 가장 비천하고 초라한 십자가를 지셨지만, 바로 그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생명과 승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것을 다 가졌어도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조금 뒤쳐지고 남들보다 가진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가진 것으로 인해 감정이 좌지우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남들의 가짜 형통을 부러워하며 흔들리던 마음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다윗과 아삽처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만족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가짜 형통'을 부러워하며 흔들리니까?
2. 유일한 자랑이신 예수님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시편 79-84편

눈물 골짜기가 은혜의 샘이 될 때(시 84:6, 10)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늘 평탄한 길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야 하고, 가슴이 턱턱 막히는 슬픔과 고난의 시간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순간들을 지났습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 갔다가 다시 귀환하는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오늘 시편 84편의 시인 역시 험난한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시인은 그곳에서 절망하며 주저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장막을 향한 견잡을 수 없는 사모함을 노래합니다. 6절을 보면 기가 막힌 반전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 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척박한 눈물의 골짜기가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샘물로 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시인이 시선이 현재의 상황에 고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선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주의 장막'을 향했습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구약의 성도들이 참담한 현실을 끌어 안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아갔다면, 오늘 우리는 '참된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저 높고 화려한 하늘 보좌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친히 이 땅의 비참한 눈물 골짜기로 내려오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사랑하는 자들의 슬픔을 보며 함께 눈물을 흘리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통곡하며 우리의 짐을 대신 짚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심으로, 죄와 고통으로 바싹 메말라 죽어가던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생명의 샘'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혼자서 걷는 눈물 골짜기는 절망과 탄식뿐입니다. 그곳엔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대신 눈물을 흘려주신 예수님과 함께 걸을 때 우리의 눈물 골짜기에는 이른 비의 은혜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10절에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세상이 주는 화려한 위로나 성공을 쫓기보다, 비록 눈물 골짜기를 걷고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우시고, 나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시길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현재 눈물 골짜기에서 내 신세를 한탄하며 주저앉아 있습니까?
2. 세상의 화려한 '천 날'보다 예수님과의 '단 하루'를 더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가정(시 69:4)

예배 시작 전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성경을 준비해주세요
믿음의 가정은 예배를 위해 먼저 묵상기도해 주세요

찬양

온 가족이 드리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455장)"입니다
유튜브 찬양링크를 통해 함께 부르시면 더 좋아요!



대표기도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용납과 인내, 결국엔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나눔

오랜 시간 함께한 부부를 보면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부부 뿐만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도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며 보낸 시간들은 서로를 닮아가게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자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의 성품과 비전을 내 삶에 나타내고자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그런 은혜가 흘러 넘칠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모든 가정의 구성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길 바랍니다. 그것은 때때로 우리 가정의 안위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물질과 시간들을 쏟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너무 고통스러워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참된 즐거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가정을 세워가는데 힘쓰시는 모든 평안의 가정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눔질문

1. 우리 가정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나요?
2. 우리 가정이 추구하는 이상은 무엇인가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아이들이 주기도문을 어려워 한다면 주기도문 찬양을 틀어주세요!





시편 85-90편

답은 하나님께(시 86:3-7)

시편 86편은 다윗이 가난하고 궁핍하며 생명의 위협과 포악한 자들의 추격 속에서 기록된 신앙고백입니다. 늘 그의 생명을 위협하였던 사울 왕은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기에, 어찌 보면 다윗은 강제적으로 십수 년간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극복해 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때 다윗은 주변이 아닌 위를 바라보았고, 사람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주님을 의지하였고(2절), 그분께 종일토록 부르짖었으며(3절), 주님을 우러러보았습니다(4절). 주님을 우러러본다는 표현은 내 마음을 그분께 들어 올려 집중하고 그분만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언제나 문제의 열쇠는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닥쳐올 때 나 자신은 어디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다윗은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굳게 믿고 확신하였습니다(7절). 그분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며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으시는 역전의 대가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늘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해결되길 소원한다면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 자신으로부터 사라지거나 물러나게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과정을 겪으며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11절). 주의 도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자 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법계를 옮길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배웠으며 철저하게 이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였습니다. 인생의 실패 원인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대로 하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다윗은 도망침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15절). 조건이 따르는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한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드릴 수 있는 감사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상황을 보고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먼저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결과에 대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것을 굳게 믿고 확신하십니까?
2. 나의 감사는 조건이 따르는 감사입니까?





시편 91-96편

내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시 96:10-13)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때로는 악인이 득세하고 힘없는 자들이 억울함을 당하며 여러 혼란스러운 일로 인해 마치 세상이 요동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 세상은 힘 있는 자들의 세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온 우주의 왕이 되신 여호와와 그의 다스리심이 영원토록 통치할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공평과 진리로 만민을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은 단순히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형벌이 아니라 억울하게 압제당하는 이들을 구원하시고, 비뚤어진 세상의 질서를 올바르게 바로 잡아 참된 평화를 회복하시는 은혜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포로기 시대나 로마와 같은 열강의 압제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은 엄청난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늘과 땅, 그리고 숲의 모든 나무들까지도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11-12절). 왜냐하면,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함께 고통받던 피조 세계까지도 죄악의 저주에서 풀려나 생명과 번영을 누리는 참된 회복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해야 합니다.

혹시 요즘 내가 처해있는 현실이 불공평해 보이고 세상의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서 낙심될 때가 있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의롭고 진실하신 재판장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과는 타협해선 아니 되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진실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침내 온 땅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회복하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기쁨과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마라나 타!

묵상질문

1. 심판의 날이 위로와 소망을 나에게 안겨주고 있습니까?
2. 오늘 당장 심판의 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시편 97-102편

하나님께 토로하다(시 102:8-16)

시편 102편의 표제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입니다. 삶 속에서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토로하고, 쏟아내며, 하소연하는 기도입니다. 이처럼 저자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무너진 상황과 형편, 그리고 영적인 상태를 다 밝히며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여주시고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이후 8절부터는 원수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그들의 비방, 대항, 미칠 듯이 날뛰는 모습을 고발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속상함 또한 고백하죠(10절). 진실로 마음속 모든 감정을 쏟아내며 토하고 있는 저자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는 결코 가볍거나 신중하지 못한 기도가 아니며 예의가 없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믿음의 몸부림침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나아가 울며 그 속상함을 다 토로하고 나면 그 과정 가운데 깊은 힘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토로의 기도는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던 나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게끔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는 생각으로 인해 마음은 답답하고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갖고 나아가 그분께 쏟아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로하며 기도한 저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차차 갖게 됩니다. 이처럼 자연스럽게 시선을 옮겨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끔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12절). 시편 저자가 기억해 낸 하나님은 다름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긍휼하신 분이시며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결국 모든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분을 경외하게 하시는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문제에 파묻혀있던 기도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기억하게 함으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로 발전하게 합니다. 고난 중에 있던 기도가 약속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시선이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도 절망의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길 소망하며,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지금 나는 어떠한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토로하며 기도해야 하나요?
2. 단 한 번이라도 토로하며 기도한 나를 꾸짖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편 103-109편

마음이 무너질 때 나오는 기도(시 107:17-20)

평안할 때는 기도가 잘 안 나오다가, 길이 막히고 마음이 무너질 때 오히려 진짜 기도가 나오곤 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시편 107편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주제로 두고 있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들, 어둠에 갇힌 사람들, 죄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선 어떤 사람들이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그들은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이 말라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이 모습은 단순히 여행의 어려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어디로 가는 지 모르겠고, 많은 것을 가졌는데 마음은 여전히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며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길로 인도해 주셨으며, 그들로 하여금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습니다(6절). 우리는 길을 찾은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길을 잃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1절) 그분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길을 다 아는 사람의 감사가 아니라 길을 잃은 사람이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믿음입니다.

10절부터는 어둠과 사망의 그들에 얹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였기에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고통이 다 죄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니지만, 어떤 고통은 분명히 죄와 불순종의 결과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죄 때문에 고통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13절).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사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얹어맨 줄을 끊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20절).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무너진 자들이 부르짖을 때 그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니 그들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내 주사 고쳐주시고, 묶인 줄을 끊어 놓으시고, 사망의 문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어둠과 방황 속에서 그분께 부르짖는 자들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묵상질문

1. 죄 때문에 고통 받을 때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으로 겸손히 받아들여십니까?
2.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품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을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시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110-115편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시 115:1-3)

1절 말씀을 보면 저자는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여 간절하게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왜 그가 이러한 간청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그가 처한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현재 그는 이방 민족으로부터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문화에선 국가 간의 전쟁을 신들의 전쟁으로 보았습니다. 승리한 국가의 신은 강한 신으로 여기게 되었고, 패배한 나라의 신은 자신의 백성도 돌보지 못하는 무능한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현재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짓밟히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주의 이름에만 영광이 돌려지길 간구합니다. 즉 하나님이 영광 받기 합당하시도록 상황을 역전해 달라는 간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1절).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여 저자는 여호와께 간구하였습니다.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의 공격적인 질문에 저자는 고백하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3절).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떠한 것으로부터 제약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며 원하시는 것은 뭐든지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오히려 저자는 그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방인들의 우상이 아무런 능력도 없고 생명력도 없음을 지적합니다. 우상들은 사람 손에 만들어진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전혀 도움이 안 되며 예배할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고 생명력이 없는 우상들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궁하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오늘도 우리는 이 두 가진 선택을 놓고 순간마다 선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모든 것을 역전하시고 마침내 그의 백성을 구원하사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2. 오늘 내가 무너뜨려야 할 우상은 무엇입니까?





선 감사, 후 은혜(시 86:15-17)

예배 시작 전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성경을 준비해주세요
믿음의 가장은 예배를 위해 먼저 묵상기도해 주세요

찬양

온 가족이 드리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입니다
유튜브 찬양링크를 통해 함께 부르시면 더 좋아요!



대표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필요를 돌보시고 먹이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나눔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 감사하나요?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나의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하지만 나의 상황이 안 좋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나요? 다윗은 사울 왕이 날마다 목숨을 위협하고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은 다윗의 믿음은 너무나도 훌륭하고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예수님도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어요. 배고픈 사람은 오천 명이 넘었는데 먹을 수 있는 양식은 고작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었죠. 음식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렸어요. 그러자 모든 사람이 그 음식을 배불리 먹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길 소망해요.

나눔질문

1. 최근에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나요?
2. 상황이 안 좋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나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아이들이 주기도문을 어려워 한다면 주기도문 찬양을 틀어주세요!





시편 116-120편

말씀으로 인생을 비추다(시편 119:97-105)

우리의 인생을 바다의 항해와 도로 위의 운전에 빗대어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디론가 향하여 가는 것이 비슷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때로는 길을 잃어 헤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항해와 운전과 같이 방향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빠르게 간다고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가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무엇을 따라 가든지에 따라 우리의 방향은 결정되고, 목적지 또한 결정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자신의 인생을 비춰준 등불과 자신의 길을 비춰준 빛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인생을 비추어준 발의 등과 길의 빛은 무엇이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악한 길로 가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가 한 것은 '주의 법'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자신과 함께하시어 모든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주의 법도'를 늘 읊조리고 지켰더니, 자신의 스승과 노인보다 더욱 명철하게 됨을 경험하였습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악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금하였고, 모든 거짓 행위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자신의 인생일 비추시며,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까이한다는 것이 단순히 성경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말씀의 주체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길을 잃어 헤매 때,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려야 합니다. 마음에 새기며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음으로 말씀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비추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 나아가십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길을 잃어 헤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길로 환하게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 앞에 머물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많이 따라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2.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며 읊조리며 마음에 품을 수 있는 한 구절은 무엇입니까?





시편 121-125편

나의 도움되시는 하나님(시 121:1-8)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 많은 위로를 주는 찬양을 떠올리게 합니다(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 찬양의 가사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시인은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식적으로 영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바라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돌보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주인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누구를 의지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천지를 지으시고, 택한 백성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눈동자와 같이 함께하시며 지켜주십니다. 그 무엇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십니다. 그들의 영혼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영원토록 지키십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달리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신앙이 비현실적인 것이라 여기십니까? 기도를 미련한 것으로 치부해 버리진 않으십니까? 현실을 넘어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밖에 할 수 없을 그때, 나의 기도를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바라볼 때, 나의 도움을 눈을 들어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선택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8절의 말씀처럼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죄와 유혹으로부터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졸지도 않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나의 도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찾으며,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최근 내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욱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 하나님께 말하지 못하고 나의 손에서 계속 통제하려고 하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시편 126-130편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시 126:1-6)

이스라엘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이 노예로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나라가 분열되었을 때에도, 포로로 잡혀 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웃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복과 형통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포로에서 돌아올 때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때를 회상해 볼 때 입가에 웃음이 가득했었고, 이방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붙드시고,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죄와 연약함까지도 아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더욱 선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들의 눈물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것을 노래합니다. 그리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죄의 유혹 속에서도 피 흘리기까지 싸움으로 구별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고난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죽기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셔서 죄에 대한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또한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기억하겠다는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과 죄의 유혹이 우리의 삶에 남아 있지만,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묵상질문

1.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실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나 습관이나 죄는 무엇입니까?
2. 현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시편 131-140편

하나님의 영향력 안으로(시 139:1-5)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기억하셔서 끝까지 붙드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기억하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연약함도 기억하시기에 두려운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조금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살펴보시기에 자신을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새 번역에서는 "살살이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환히 알고 계신다"라고 번역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살살이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환히 아실뿐 아니라 우리의 '앓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길과 우리가 눕는 것과 우리의 "모든 행위"까지 익히 아신다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앞뒤로 둘러싸고 계셔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스올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행동과 모든 말은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밖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 중심부로 들어가 온전히 그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싸셔서 어디로 가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 말씀이 위로와 소망의 노래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향력 밖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두려움과 절망의 탄식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영향력 중심부로 초대하시고 부르십니다. 여전히 자격 없고 부족한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에서 숨길 것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피할 곳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태도와 입장을 바꾸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의 영향력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어 악인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나를 덮고 있는 흑암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손 안에서 충분한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하나님의 영향력 밖으로 나가고자 했던 나의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2.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시편 141-150편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시 147:8-12)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을 끝으로 해피밀 시편 본문은 막을 내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노래했던 시인들의 찬송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쁨 때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슬픔과 고통 속에 탄식하며 애통의 노래를 올려드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시편에는 모든 인간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찬양과 노래를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뻐하며, 누구를 찬양하며 살아가십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나의 감정 상태에 따라 찬양의 여부를 결정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삶 자체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47편의 내용은 '비 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의 가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결국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만으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성공과 힘, 권력과 능력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가치대로 우리를 판단하고, 값어치를 매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랄 때에,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감정 상태에 있을지라도, 어떤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의도적으로 "할렐루야,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선포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애통으로, 때로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고백을 기뻐 받으실 것이고, 무너진 곳을 세우시며, 흩어진 것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의 삶은 불들어 주실 것입니다(2~6절). 오늘 하루, 어디서 무엇을 하든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 올려드리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묵상질문

1.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 감정, 유혹, 열등감 등)
2.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모습은 무엇이며,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분(시 121:1-8)

예배 시작 전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성경을 준비해주세요
믿음의 가정은 예배를 위해 먼저 묵상기도해 주세요

찬양

온 가족이 드리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유튜브 찬양링크를 통해 함께 부르시면 더 좋습니다!



대표기도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말씀나눔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을 모아놓은 성경입니다. 오늘 시편 127편을 쓴 시인은 눈을 들어 자신의 도움 되시는 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라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기 위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라는 우리 가정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눔질문

1.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전능하신, 지키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등)
2. 각자의 기도제목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참고해서 각자 기도문을 작성해 보세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아이들이 주기도문을 어려워 한다면 주기도문 찬양을 틀어주세요!



COME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평안교회 오세요



Christ alone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입니다.

Outward focus

나보다 남을 섬기며
선교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Mature together

성도들이 말씀의 교제를 통해 함
께 성숙해가는 교회입니다.

Extended family

세대간의 화합과 신앙의 대잇기를
열망하는 대가족 교회입니다.

